

전통과 첨단이 함께 하는 민족의 대학 “영남대학교”

김 상 근 | 영남대 총장

◇ 역사

영남대학교는 1947년 설립된 대구대학교와 1950년 설립된 청구대학이 1967년 12월 16일 통합해 개교한 이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국내 최고, 최대의 사학이다. 영남대학교는 1백만 평의 광활한 캠퍼스에 14개 단과 대학, 45개 학부(과)의 입학 정원이 5,250명, 대학원과 6개 특수 대학원, 또한 지역 시민들의 의료 중심인 의료원과 12개 부속 기관, 37개 부설 연구소, 평생 교육원 등 명실 공히 지성의 도량으로서 대표적인 명문 사학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 창학 정신

영남대학교는 지성의 전당으로서 애국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 교육과 생산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민족 중흥의 새 역사 창조에 기여함을 창학 정신으로 삼는다.

◇ 교육 목표

영남대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목표는 창학 정신에 제시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의 대학', '세계 속의 대학'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데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영남대학교는 민주 교육의 근본 이념에 기하여,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 정치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아울러 협동 정신이 풍부한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학부(과) 평가 업적

- 1993학년도 화학과 우수
- 1994학년도 생물학과 우수
- 1995학년도 경영학과, 무역학과 학부·대학원 최우수
- 1996학년도 의학과 우수(학생 부문 최우수)



- 1997학년도 약학부 우수
- 1998학년도 사범대학 우수
- 1999학년도 법학부 최우수, 건축공학과 우수

◇ 대학 연혁

- 1947. 9. 22 재단 법인 대구대학 설립 인가
- 1950. 4. 10 재단 법인 청구대학 설립 인가
- 1967. 12. 22 양 대학을 통합하여 영남대학교 설립 인가
- 1968. 1. 1 초대 총장 신기석 박사 취임
- 1968. 6. 1 경산군 경산읍과 압량면에서 105만여 평의 학교 부지 마련
- 1972. 7. 20 대학 본부를 비롯한 전체 기구 경산 교사로 이전
- 1974. 8. 31 중앙 도서관 겸 연구동 22층 건물 준공
- 1986. 5. 20 영대병원 의료원으로 승격 발족
- 1994. 8. 22 공과대학 국책 지원 사업 선정
- 1997. 3. 1 제 10대 총장 김상근 박사 취임
- 1997. 11. 10 지방 대학 특성화 사업(기초 과학 실험 교육 특성화) 선정
- 1997. 12. 22 시범 테크노파크 사업 주관 대학 선정
- 1998. 9. 3 정보 통신 우수 시범 대학 선정

- 1999. 8. 31 BK 21 지역 대학 육성 사업 주관 대학 선정
- 1999. 11. 4 섬유·의류 연구 정보 센터 지정
- 2000. 현재 14개 단과 대학, 대학원과 6개 특수 대학원, 의료원, 12개 부속 기관, 37개 부설 연구 기관, 평생 교육원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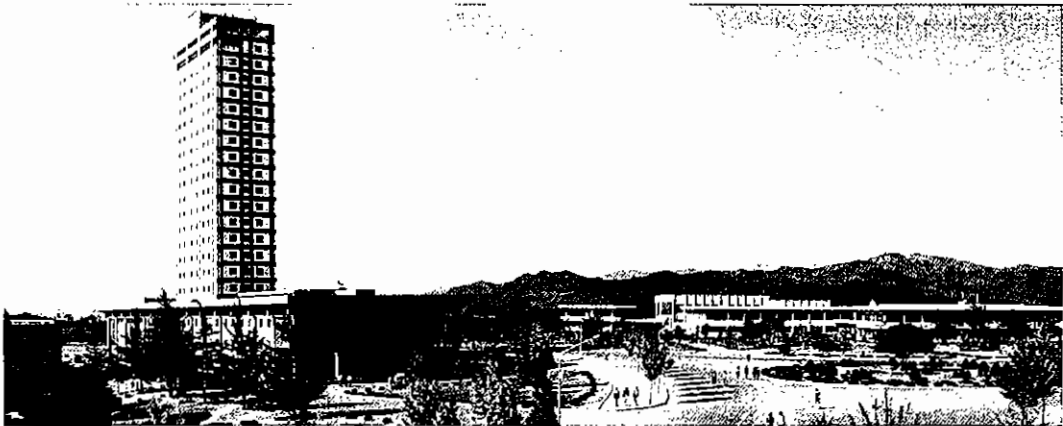
◇ 공인된 대학의 우수성

"높이, 더 멀리 보는 날개를 달았다"

영남대는 '96년부터 4년 연속 '교육 개혁 추진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고, '98년에는 '지역 사회와의 연계'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경북 테크노파크 주관 대학으로서 산·학·연·관 협력 체제를 구축했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정보 통신 특성화 사업 등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 최고의 명문 대학이다.

'99년에는 'Brain Korea 21'에 전국 사립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주관 대학(기계 분야)으로 선정됐다. 이는 '95년부터 4년간 추진한 국책 지원 공과 대학 육성 사업(기계·금속·소재 분야) 실적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영남대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또한 BK 21 대학원 연구력 제고 사업에 자연 과학·인문 사회 분야가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중점 연구소 전국 대학 중 최다 선정, 특



수 목적 사업 지원 전국 대학 중 1위, 지방 대학 특성화 사업 우수 대학 2년 연속 선정 등 이루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업적과 발전을 이뤄 왔다.

위에서 확인하듯 정부가 영남대의 우수성을 공인하고 있으며, 지역 최고의 대학이라는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특성화 학부

- 기계공학부 : 막대한 정부 투자 지원금은 물론 각 기업체로부터 대응 투자 형식의 연구 시설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21세기 지식 정보 산업 시대를 주도할 인재 양성과 전문적인 교육 효과를 위해 최신 실험 실습을 위한 교육·연구 기기 도입 등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94년 사립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교육부 지원 국책 공과 대학 특성화 학부로 선정돼 연간 50억 원씩 5년간 250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5년간 학교 자체 투자와 산업체 대응 투자금이 921억 5천만 원으로 총 사업비가 1,190억 원에 달해, 우수 교원 초빙 및 교육 시설 확충 등 교육·연구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을 실현시키고 있다. '99년도에 BK 21 지역 대학 육성 사업(기계 분야)의 대구·경북권역 주관 대학으로 선정돼 7년간의 국고 지원을 받게 되며, 뉴 밀레니엄 시대의 첨단 공학을 선도하는 주역으로 도약하고 있다.

- 전자정보공학부

- '98년 정보통신부 선정 정보 통신 우수 대학, 창업 지원 센터 지정
- '99년 정보통신부 대학 S/W 연구 센터 지정
- '99년 교육부 선정 BK 21 정보 기술 분야 지역 대학 육성 사업단
- 2000년 산업자원부 선정 경북 테크노파크 차세대 인터넷 전문 연구 센터 등으로 선정돼 특성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전자정보공학부는 다양한 교육 방법(원격 강의, 산업체 현장 견학)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 각 세부 전공으로의 전공 심화 교육과 창의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외국 대학 및 산업체와 연구간의 공동 연구, 공동 강의를 하고 있다. 전자정보공학부는 또 대외적으로 최고의 학부임을 공인 받고 있으며, 향후 6년간 정부의 지원과 함께 영남대학교의 중점 학부 육성 지정 등으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보다 특성화된 학부로 발전해 가고 있다.

- 자연과학부 : '97년 교육부의 지방 대학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돼 기초 과학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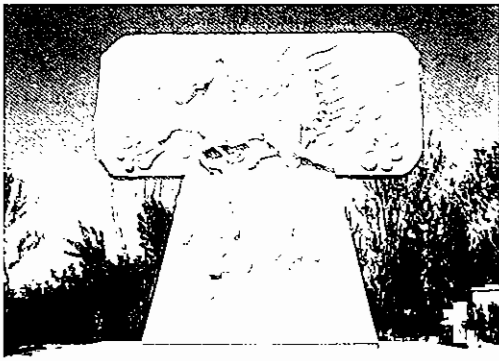
기초 과학부(물리학, 화학, 생물학, 생화학)는 5년간 총 162억 원을 투자하고 철저한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전공이 다른 분야 사이의 협동적 교육 및 실험 교육을 실시하는 '학제간 전공 실험', 전자 현미경, X-ray, 핵분광분석기,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등 수억 원대의 고가 실험 기기를 활용한 심도 있는 '전공 실험 심화 과정' 등을 실시하는 등 기초 과학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특성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전임 교수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 '93년 화학과, '94년 생물학과 '우수' 평가를 받았다.

◇ 교육 환경과 교수진

"앞선 대학, 그 이유가 있다"

'99년 장서 1백만 권을 넘어선 도서관은 완벽한 전자 도서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논문과 도서를 포함한 50만 건의 D/B를 비롯, 최신 기종의 비도서 전자 자료를 자유롭게 검색·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전자 정보실에서는 멀티미디어 교육 환경에 발맞춰 이용자가 직접 비디오, 슬라이드, CD롬, VOD 등 매체



를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TOEFL 테스트를 주관하는 미국 ETS로부터 TOEFL 센터로 지정된 외국어 교육원, 토플 시험과 관련해 원서 접수에서 시험 응시까지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인터넷 강의와 사이버 대학을 위한 전용 강의실이 완비돼 있고, 50여 개의 컴퓨터 전용실이 설치돼 있어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가늠할 때 중요한 척도가 되는 외부 연구비 수탁액 규모에서 영남대가 '96년 지역 사립대 최초로 1백억 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대외 수탁 연구비는 '97년 123억 8천 5백만 원(369과제), '98년 106억 9천 3백만 원(335과제), '99년 115억 6백만 원(318과제)으로 IMF 이후 일시 줄었으나 영남대 교수진의 우수성은 확인할 수 있다.

◇ 정보화 캠퍼스

"빛이 힘이 되는 온라인 캠퍼스"

'93년 전국 최초로 교내 근거리 통신망(LAN)을 구축, 인터넷을 개통한 영남대는 현재 인터넷 PC만 6천 대가 넘는다. 최첨단 정보화 캠퍼스를 구축하려는 영남대의 의지는 올해 전국 대학 최초로 외부 인터넷 전용 회선을 T3(45Mbps)으로 증속해 명실

상부한 멀티미디어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로써 학내망과 외부 인터넷 전용망의 속도가 향상돼 연구·학사 업무는 물론 사이버 강의 등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대학 정보화의 중추인 전산 정보원에는 학생 실습실, VOD실, 종합 지원실이 운영되고, 각종 통계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으로 연구·강의·행정 업무가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최적 교육 환경을 구축 전교생이 유닉스 및 윈도우즈 NT 계정을 받아 전자 우편,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Web상에 천마 정보광장, 학생용 BBS인 천마 비비를 가동하고 있고, Web을 통한 원격 강의와 사이버 대학의 일환으로 강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 종합 정보화 사업을 완료해 대학 행정의 획기적인 서비스를 보여 주고 있다.

◇ 장학 제도

"2000학년도 장학금 총액 1백 20억 원"

영남대의 장학 제도는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교비 장학금 지원 제도와 각종 외부 장학 재단에서 지급하는 외부 장학금 등이 있다. 2000학년도 교비 장학금 총액만도 94억 원을 넘어섰고 있으며, 또한 외부 장학 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총액만도 26억여 원에 이르며, 매 학기 전체 재학생 중 약 30%가 장학금을 수혜받고 있다.

◇ 복지·편의 시설

"전망 좋은 방에서 미래를 본다"

아름다운 호수, 남매지의 사계와 함께 하는 전망 좋은 생활관! 영남대 기숙사는 자연 속의 컴퓨터자 공부방으론 제격. 일반형 5개 동과 자취형 1개 동의 각 방에는 전국 어느 대학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대학 종합 전산망(LAN)이 연

결돼 있어 학사 일정도 열람하고 사이버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올해 착공한 매머드 생활관이 완공되면 2천 5백여 명이 생활하는 신개념 대학촌이 탄생한다. 또한 각종 국가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급 공부방'인 고시원도 갖춰져 있다.

모든 행정 서비스 업무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는 영남대가 추진하는 수요자 중심의 미래 지향적 복지 봉사형 캠퍼스의 전형이다. 또한 취업 정보실, 정보 검색실이 운영되고 복사기, 팩시밀리 등 편의 시설도 완비돼 있다.

센터 내에는 학생들의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건 진료소가 설치돼 있어, 학생들은 건강 공제회에 가입해 진료비 혜택과 건강 검진 등을 받고 있다.

◇ 국제 교류

"World Wide Way, 세계로 시원하게 통한다"

영남대에는 총 12개국 43개 대학 및 연구 기관과 학술 및 교수·학생 교류 협정을 맺고 있으며, 전국 대학에서 유일한 해외 유학 장학생 프로그램 및 학점 상호 인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영남대와 자매 대학인 카자흐스탄 공화국 알마티 대학과 미국 버지니아주 올드도미니언 대학, 미국 인디애나주 볼스테이트 대학의 학생 연수단 방문과 함께 영남대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과 중국 북경항공 대학, 중국 북화 대학 등으로 연수 및 교환 학생을 각 학기마다 파견하고 있다. 또 해외 유학을 향한 학생들의 열의와 기회의 폭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종합 봉사실에서는 유학 및 어학 연수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태평양아시아협회와 한국대학사회봉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 봉사단에도 영남대 학생 13여 명이 선발돼 우리 나라 전통 예술 분야 및 컴퓨터, 영어, 한국 음식 등을 지도하며,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동아리 활동

"도전과 실험의 장, '우리'가 되는 나"

대학에 와서도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나 채팅을 하고 있는가? 그것보다 더 신나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영남대에는 1백 12개나 있다. 영남대 동아리는 전국에서 그 수가 최다를 이룰 뿐만 아니라 어학, 학술, 예술, 봉사, 응용 학술, 체육, 교양, 종교 등 분과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이들 동아리들은 5월에 열리는 대동제가 되면 각종 이벤트, 예술 작품 전시회, 주막촌 등 그 동안 쌓아 온 자신들만의 기량과 끼를 마음껏 쏟아 낸다. 특히 얼마 전 아시아 최초로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Midwest Mini Baja 경기에 출전한 자동차 제작 동아리 'YUSAE'를 비롯해 최근 뚝을 일으킨 창업 동아리 '벤처 캐리어즈' 등은 대외적으로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창립한지 30여 년의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체육분과 '문무반'이나 예술분과 '죽순회'부터 새로 창립되는 대중 몸짓패 '노뚝돌', 민스 동아리 '맥스&제니스'까지 1백 12개의 동아리들은 끊임없는 실험 정신과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동아리 문화를 만들고 있다. **▶▶▶**